가톨릭마산

교구장 사목표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3 팩스 055)249-711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2@cathms.or.kr
주소 (51727)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제2358호 2019. 5. 26. 부활 제6주일(청소년 주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롭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주게 됩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처 입을 기회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당신의 힘으로 다툼이나 갈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주시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당신 안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평화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런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실수는 격려받을 수 있음을 알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고,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이처럼 사랑 받은 기억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상처받아도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집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불안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낸 아픔입니다.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을 너무나도 쉽게 구분짓는 어른들이 만든 사회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고, 어느 순간에도 그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평화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정림 라우렌시오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주일 전례

입 당 송	환호 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본 기 도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제 1 독 서	사도 15,1-2.22-29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제 2 독 서	묵시 21,10-14.22-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 14,23ㄴ-29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5. 아담, 아브라함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There was a time you let me know, What's really going on below...
It's a cold and it's a broken Hallelujah... The holy or the broken Hallelujah.*

– 레너드 코언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 창세 4,17–19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 창세 12,1

아담도, 아브라함도, 떠나야 했습니다. 안락한 하느님의 낙원에서, 안락한 자신의 터전에서.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신앙은 오히려, 그 편안함을 버리고 끊임없이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순례하는 삶'은 신앙의 조건일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 운명입니다. 그게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땅의 삶이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통해, 숨겨진 삶의 보물을 발견해 내는 과정,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빛스럽습니다.

불가능을 꿈꾸고, 불가능한 사랑을 하여라.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아라.

– 돈키호테

* 저 아래, 땅의 삶을 알게 하시니,
차가운 상황, 무너진 상황에서도, 거룩한 것이든 부서진 것이든, 알렐루야.

2019 엠마오 여행 (루카 24,13–35)

▶ 교구 홈페이지 참조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선물(우리농 상품권)도 드립니다.

1 말씀풀이

1.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곳은? (초성 : ㅁㄹㅇ)
2.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 20,19–23; 초성 ㅇㅅ)
3.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첫번째 계약을 맺은 곳은? (탈출기 24장 : ○○○ 산)
4.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루카 24,50–53)
5.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동체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으며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요한 20,19–23)

2 순례와 미사 마산교구 순교복자 성지 또는 하느님의 종 묘소

3 증언하기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누기

응모내용 : 말씀풀이 5개, 순례지 사진 1장, 부활인사 또는 부활체험 나눔
응모기간 : 부활 제5주일 ~ 주님 승천 대축일
보내실곳 : 미디어국 media2@cathms.or.kr 또는 전화 010.8482.2031
"전화는 문자, 사진, 파일만 받습니다. 문의는 미디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선물발표 : 성령 강림 대축일

고성성당 80주년

| 고성성당 80주년 기념행사와 견진성사가 5월 12일 있었다. 고성성당(주임: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은 사진전과 전통놀이 잔치를 열어, 신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9명의 교우들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견진성사 강론에서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순교자의 자취가 고성성당 신앙의 뿌리임을 지적하였고, 견진성사와 성소주일의 의미로 교우들에게 하느님 영을 받아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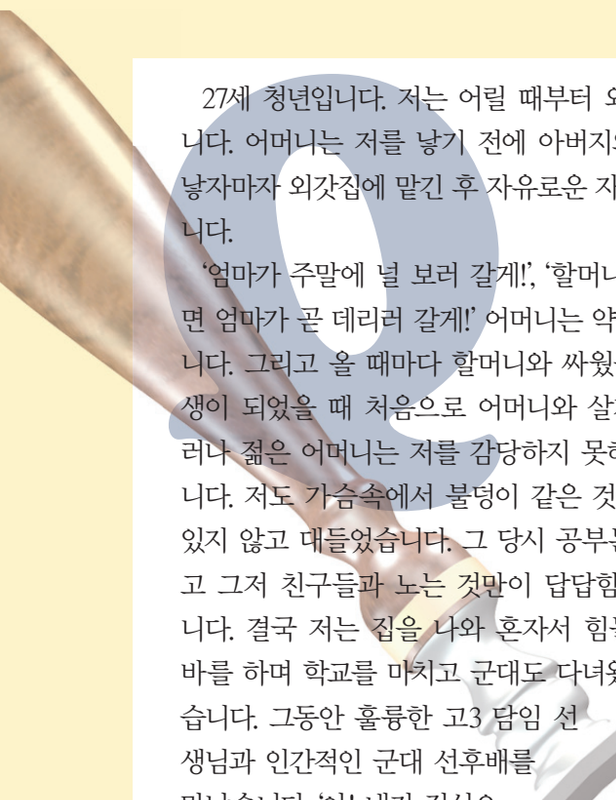
중동성당 제1회 중동예술제

| 중동성당(주임 :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은 5월 5일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제1회 중동예술제를 개최하였다. 30여 명의 교우들이 60점의 작품(회화, 조각, 도자기, 서예, 수예, 서각, 성경가훈, 시화, 민화 등)으로 참여하였다. 일주일간 전시된 작품을 통해, 교우들은 친교와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교구 여성협의회 제9회 여성의 날

| 5월 14일 교구 여성협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여성의 날 행사를 가졌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 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며, 거제지역에 천주교가 들어왔던 길을 순례하였다. 윤봉문 요셉 순교자 성지에서 박창균 총대리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드리고, 지구별로 십자가의 길도 걸었다.

어머니가 철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27세 청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에 아버지와 헤어졌고, 저를 낳자마자 외갓집에 맡긴 후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주말에 널 보러 갈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어머니는 약속을 가끔 지켰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할머니와 싸웠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어머니는 저를 감당하지 못해 매일 화만 냈습니다. 저도 가슴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는 전혀 되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만이 답답함의 탈출구였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와 혼자서 힘들게 알바를 하며 학교를 마치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고3 담임 선생님과 인간적인 군대 선후배를 만났습니다. '아!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면 나도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인정도 받고 돈도 모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렇게 좋구나!'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가슴 벅차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직장에서 손을 조금 다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회복기이며 열심히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날 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깜박 잊고 여행 가셨다고 하네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의 가게 재계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부탁하네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 달라고요.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은 모두 말립니다. 가족은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의 다급한 사정을 몰라라 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잘 견뎌 오셨군요. 힘들게 살아오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모가 돌보는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늘 고마운 사람들이 곁에 있었군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을 알아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어린 시절을 안전하게 품어주셨군요. 고3 담임 선생님도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 학생에게 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인간성 좋은 선후배를 만난 것 또한 행운입니다. 그들 역시 인간적인 사람을 알아 본거죠. 제일 운이 좋은 것은 항상 곁에 머물러주며 편이 되어준 의리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온 본인의 생명력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시작하게 생명을 준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삶의 시작은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 하지 않고 낳아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핏덩이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립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받고, 사랑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잘해주고 싶어하는지 잘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과 사랑을 속일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현재 자신의 경제 여건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깝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액수를 그냥 드리세요. 대출로 자신에게 부담될 정도의 돈을 드리면 두 사람 모두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도 서로 원수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 훗날 어머니가 기력이 없을 때 효도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이 맞습니다. 하나뿐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은 아들의 마음도 맞습니다.

모자가 더욱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제의 한마디

“어른들 말씀”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어른들 말씀이 “입에 단 것은 몸에 병을 만들고,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들 말씀을 따르고자 젊은 시절부터 몸에 좋을까 싶어 입에 쓴 소주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이 되기보다는 병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길래 저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자다가 떡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체해서 밤새 고생했습니다. 자다가는 떡을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른 말씀이 “밥이 보약이다.”라고 하시기에 몸에 좋으라고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복부비만에 체지방 과다라는….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른이 계시면 가까운 보건소에 불법 의약품 광고로 신고하십시오. 치과엘 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데 아저씨 한 분이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이가 썩어서 뽑으러 왔다고 합니다.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옛 어른말씀에 ‘이 대신 잇몸’이라고 이 뽑고 편안하게 잇몸으로 사십시오. 허허!” 그 아저씨가 저를 째려보시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니 치과 원장님 눈에서도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치과 치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른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귓등으로만 듣다 보니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당에서도 본당 신부님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귓등으로만 듣다가 저 같은 꼴을 당하는 신자들을 가끔 봅니다. 세상 어른 말씀, 교회 어른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하느님 만나는 신자 됩시다.

외할머니와 엄마의 신앙

영혼의 뜨락
교구 가톨릭 문인회

이주언 레지나 • 시인

어릴 적 내게 가톨릭 신자의 지순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할머니시다. 그리운 나의 할머니, 이막직 루시아!

부산에서 맞벌이 부모 밑에 자란 나는 방학마다 마산의 외갓집에 와서 지내곤 했다. 잠을 깨자마자, 매일 어둑한 방에서 성상을 향해 묵주기도를 올리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각인되어 있다.

친정엄마는 시집을 가자마자 시가의 종교를 따라야 했기에 가톨릭 신자가 되지 못했다. 게다가 내 부모님은 집안의 종교를 따라 평생을 사셨다. 하지만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다. 결혼 십여 년 후 내게 외로운 시기가 닥쳤을 때 성당에 끌려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사와 같은 여러 이유로 무늬만 신자인 채 이십여 년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 할머니와 엄마를 여의었는데, 두 분 다 우연히 사순시기에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구암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있었다. 그 경건함에 매료되어 다시 성당엘 열심히 다니리라 결심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장례미사에 참석했던 엄마는 “나도 성당 다니고 싶다. 참 정갈하고 신성한 종교인 것 같다.”며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다.

세월이 지나 엄마가 말기 암으로 파티마병원 은혜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수녀님께서 대세를 권하셔서 엄마께 의사를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셨다. 평생 믿어온 종교를 죽음의 순간에 바꾸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의 뜻을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무슨 종교인지보다는 본인의 믿음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파티마병원 미사에 몇 번 참석했던 나는 완월동성당을 찾게 되었다. 곧 엄마를 떠나보냈고, 이후 기도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주님! 엄마가 사정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살지는 못했으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배려하는 삶을 살다 가셨으니, 엄마의 영혼을 보살펴 주소서!”라며 염치없이 매달리곤 했다. 그러다 판공성사 때 엄마를 주님 품으로 들이려 애쓰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가 딸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사후까지 이어지는 신비로운 해법이었다.

지난 사순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을 되새길 기회가 많았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큰 고난을 당하셨으니 무엇인들 용서치 못하시랴. 주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며 성상 앞에서 옷깃을 여민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 누군가의 무의식에 각인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 신앙의 싹을 틔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故 이응석 프란치스코 신부 9주기 추도미사

일 시 : 6. 8.(토)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교구장 동정

일 시 : 5. 28.(화) 10:00
장 소 : 교구청
내 용 : 사제평의회

교구·본당

■ **사제평의회**
일 시 : 5. 28.(화) 10:00
장 소 : 교구청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 마산지구**
일 시 : 5. 29.(수) 14:00
장 소 : 양덕동성당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 창원지구**
일 시 : 5. 29.(수) 14:00
장 소 : 반송성당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소공동체연구위원 모임**
일 시 : 5. 30.(목) 11: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신앙대학**
일 시 : 6. 1.(토)~2.(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성소육성회 본당순회미사**
일 시 : 6. 2.(주일) 10:00
장 소 : 북신동성당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성경특강**
주 제 :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주님이십니다."
강 사 : 김영선 루시아 수녀
일시/장소 : 6. 3.(월)/ 칠암성당(거제, 진주지구)
6. 4.(화)/ 명서동성당(창원, 마산지구)
시 간 : 10:00~13:00(성경, 필기도구)
강의료 : 5,000원(당일판매 가능)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 (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 (수) 16:00
매 (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원 매주(수) 18:00 지하 1층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위원회·기관·단체

■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 시 : 5. 28.(화) 13:30
장 소 : 교구청 성당과 강당
문 의 : 담당자 010.9841.8191
※ 미사와 월례회 및 작품발표가 있습니다.

■ **제26차 성장꾸르실료**
일 시 : 6. 1.(토)~2.(주일) 1박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담당자 055.247.3058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 (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가톨릭문인회 시민 인문학 특강**
일 시 : 6. 5.(수) 18:30
장 소 : 마산교구청 강당
주 제 : 정신분석비평 입문 (라캉의 도둑맞은 편지를 중심으로)
강 사 : 배대화(현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 의 : 담당자 010.4477.7245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 (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 (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 (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 (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 (월) 10:00 하대동
문 의 :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 (토)
장 소 :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대건성당 10:3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수도회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젊은이 선교체험(대만)**
일 시 : 8. 1.(목)~6.(화) 5박6일
대 상 : 만19세~만35세, 청년 남여 15명
경 비 : 100만 원(항공료포함)/ 마감 : 6월 중순
신 청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53.0613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5. 29.~31./ 6. 10.~12./ 6. 14.~16./ 6. 19.~22./ 6. 25.~28./ 7. 5.~7.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원
▶6/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7/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홍콩마카오 4일 (13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출퇴근/일반여행/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VIP/공항투어/웨딩/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진해시니어클럽 자 연 솝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기 타

■ 마산의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 (평일 및 토요일)
장 소 : 도립 마산의료원 (5층)
분 야 :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영적지지, 목욕, 발마사지, 간병가족위로, 사별가족 돌봄)
문 의 : 055.249.1541, 010.3850.6722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 제주 힐링 성지순례 3일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일 시 : 6. 4.~ 6./ 7. 12.~14./ 8. 9.~11./ 9. 17.~19./ 10. 15.~17.
장 소 : 제주성지 6곳 (성지해설)
문 의 :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 10. 3.(목)~9.(수) 그리스 성지순례 7일

2019년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주제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마태 5,9)
일 시 : 6. 25.(화) 10:00~14:00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신 청 : 6. 15.(토)까지/ 팩스 055.249.7168 선착순 80명 마감
참가비 : 3만 원(경남 504-07-0096809 입금자명 : 본당 또는 단체명)
준비물 : 미사준비, 신분증
문 의 :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명례성지 한국천주교회사 강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일 정 : 6. 15.(토) 16:00 개강미사 (1년과정)
평일반 : 매월 3주(화) 11:00 미사 후
주말반 : 매월 3주(토) 16:00 미사 후
장 소 : 명례성지/ 회 비 : 10만 원
강 사 : 신은근 신부, 최문성 신부, 조미형 수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인 원 : 각 반 선착순 50명
신청 및 문의 : 조미형 수녀 010.5877.3217

29차 청년성령세미나(2박3일)

일 시 : 6. 28.(금)14:00~6. 30.(주일)16: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청년
참가비 : 9만 원
입금계좌 :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 청 : 6. 19.(수)까지 (참가비 입금순 40명)
문 의 :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8864.7067, 010.9113.7062
※ 파견미사 6.30.(주일) 14:00

약혼자 주말 (2박3일)

일 시 : 6. 21.(금) 19:00~23.(주일) 16:00
장 소 : 성혈흠숭수녀원
대 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2년 미만의 신혼부부
교육비 : 1인당 12만 원(부부당 24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01-0003-8497-3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청기한 : 6. 14.(금)까지 (선착순)
접 수 : 본당사무실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5. 27.(월) 19:00	월남동성당	성령체험을 통한 나의 변화(평화의 기쁨)	정철현 신부(바오로)	정철현 신부	010-5072-5612
창원지구	5. 27.(월) 19:00	반 송 성 당	제5강 : 성령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최재상 신부(마티아)	최재상 신부	010-9664-1813
진주지구	5. 27.(월) 19:30	옥 봉 성 당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병우 신부(루카)	이병우 신부	010-9677-4224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6. 2.(주일) 10:00	서울돈암동 본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한국외방선교회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성소국장 신부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더편한요양병원
장기요양입원, 노인성질환, 치매, 중풍, 통증치료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요한)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베트남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부산 or 대구 출발 직항편 매일확보 / 전문 교우가이드 배치
1. 북부 순교성지 +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110만원~)
2. 중부 성모발현지 + 다낭/호이안 3박 5일 (110만원~)
3. 북부 + 중부 성지 핵심일정 포함 4박 6일 (130만원~)
< 본당 및 신심단체 환영, 소규모 그룹 연합(상시 모객), 별도일정 협의가능 >
Tour Chance 투어찬스 대표 이승준 요한 보스코 (마산 삼계)
010-2992-4785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Asiana Airlines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KOREAN AIR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0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 행사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
055.333.6300, 010.3720.0303
대표 우 종 한 리차드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3: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T. 055.293.5605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낱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신은근 바오로 신부 · 신안동본당 주임

야훼와 주님

구약성경엔 하느님을 부르는 용어가 여럿 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야훼(Yahweh), 엘로힘(Elohim), 아도나이(Adonai)다. 한 분 하느님을 왜 이렇게 다양한 말로 불렀을까? 그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다. 히브리인은 주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다. 대신 히브리어 자음子音으로 이름을 대신했다. YHWH 네 글자다. 학자들은 YHWH 발음을 야훼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야훼는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발음으로 하느님을 부르는 말이었다.

한국 개신교는 YHWH를 여호와로 발음한다. 1901년 발간된 미국 표준성경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성경엔 YHWH가 Jehovah(여호와)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우리말 성경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여호와란 단어로 번역되었고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다. 표준성경이 YHWH를 Jehovah로 발음한 데는 이유가 있다. 유대인은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기에 아도나이로 읽었다. 나의 주님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 YHWH를 아도나이로 발음했던 것이다. 훗날 유대인 학자들은 자음으로 구성된 YHWH에 아도나이 모음을 붙여봤다. 여호와란 발음이 나온 것이다. 이후 YHWH 발음을 여호와라 주장하는 학파가 생겨났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을 떠난 개신교는 구약성경을 새롭게 번역했다. 그들은 야훼대신 여호와를 택했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 성경엔 여호와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야훼와 여호와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다. 하느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말 네 글자(YHWH)의 발음일 뿐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희랍어 성경은 YHWH를 키리오스(Kyrios 주님)라 했다. 자기네 말로 표기한 것이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도 자국어로 도미누스(Dominus 주님)라 했다.

1604년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새로운 성경 번역을 국가 차원에서 시도한다. 히브리어와 희랍어에 완벽히 일치하는 성경 번역이었다. 모든 영국 교회에서 사용할 것을 왕명으로 선언했다. 훗날의 흠정역본(King James Version)이다. 영어권에선 가장 권위 있고 고전적인 성경이다. 이곳에서도 YHWH는 여호와가 아닌 로-드(Lord 주님)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도 야훼 대신 주님이란 표현을 쓰기로 결정한다.(2008.10.17.) 그런 이유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엔 모두 주님으로 표기되어 있다. 거룩한 네 글자로 표현된 하느님 이름을 전례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교황청 지침을 따른 것이다. 유대인 발음이 아니라 자국 발음으로 하느님을 부르자는 것이 교황청 의도였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가톨릭 칼럼

김현주 율리아나 ·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작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여성이 살해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와 살해 위협을 했고 치밀한 준비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또 12월에는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에서 시집온 이주여성이 부부싸움 중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결혼한 지 7년이 됐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남편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를 다녔는데 화장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해 주변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작년 한 해 남편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가 최소 64명. 여성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며, 혼인 관계 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상습적이고 계획된 범행의 결과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번 '양산지역 이주여성 사망 사건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의 폭력 피해는 주로 체류권, 언어적인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원인이라고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이주민을 차별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으로 대하는 따뜻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산가정상담센터장은 "가정폭력은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하는 다른 가족도 심각한 심신 피해, 후유증을 겪게 되며, 사회적으로 폭력의 악순환, 확대를 가져오지만 많은 이들이 단순한 '가정불화', '부부싸움'으로 방치하거나 무관심함으로 가정폭력근절이 어렵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적이거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가정에 대한 특별 시노드 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대한 사목은 가해자를 그저 용서하고 잊으라는 충고만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 복지 그리고 치유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많은 시간을 두고 노력해 자신의 태도, 말투, 행동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님과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사소한 다툼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교회와 사회 모두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